

02

시론

시론 _ 코로나19와 함께 변화되어가는 집에 대한 인식

03

종합

사랑에서 _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건축사 Q&A

04-05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22년도 상반기 실무교육' 5월 10일부터 신청 접수

목포시, 건축자산 '갑자옥 모자점' 활용한 모자아트갤러리 9월 개관 예정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7월 개관 예정



06-07

전북 지역 뉴스

전북대학교 수출 한옥, 베트남 퀴논시 준공
전라북도, 시설물 등 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추진
전주시, 주택가 주변 주차 공간 조성 지원

08-09

광주 지역 뉴스

광주에서 열린 제1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광주건축사회, 2022년도 광주건축사회 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지방선거 출마 회원 격려 방문

10

설계경기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건축설계 공모

11

독자광장

책 소개 _ 양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

한 편의 시 _ 영혼없는 건물

건축사 만평

12

광고

광고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람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변화되어가는 집에 대한 인식



정영법 논설위원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대표
hero2010@daum.net

- 2000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2014 전남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2019 전남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2013-현재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대표
- 2013-2015 / 2017-2018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2015-2017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 주요 작품 : 구례목재문화체험장, 구례웨이트트레이닝센터,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오방 최흥종 기념관, 월산4동행정복지센터 등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개편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해가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실정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들에 의해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스스로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우리의 DNA 안으로 들어와 뇌리에 각인된 여럿이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내게 하고 진화된 공간들을 만들어 가게 되리라 생각된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 중의 하나는 집 즉 사람들이 정주하고 머무르며 살아가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일 것이다.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과 이를 둘러싼 물리적인 장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교수, 건축가, 건축사들이 참여하여 “토요건축문화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인 건축과 도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 도심 속의 좋은 장소와 바꿔어야 하는 장소 등 무심히 지나쳤던 도심 속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과 장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 보게 함으로써 미래의 건축사, 시공자 또 건축주가 될 어린 학생들에게 건축과 도시를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건축적 소양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건축과 도시의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또 어떤 공간이 안전한가? 어떤 공간이 좋은 공간인가? 어떤 공간이 좋지 않은 공간인가? 어떤 공간은 어떻게 바꿔야 사람들에게 좋을까? 등 사람들에게 일부러 인지하고 생각해 보게 하여 알아가게 한 이 공간과 장소에 대한 물음에 대해 코로나시기 바이러스의 공포와 함께 사람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느끼게 되었으며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주거공간을 만들고 정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복잡해진 사회구조만큼이나 다양한 직업의 스타일들을 갖게 되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던 본연의 용도를 넘어 그 사용성에 대한 개념도 다변화 되어 주거와 업무, 여가생활 등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게 복합적이고 가변성까지 갖춘 공간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더불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

아진 만큼 집의 활용성이 다양하게 다목적성으로 바뀌면서 밸코니나 중정, 마당과 같이 자연과 접한 여유롭고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외부공간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환기의 중요성, 여러 사람을 피해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외부공간의 중요성을 안전의 방향에서 인지하게 되면서 아파트의 외부발코니와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의 매력을 알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저마다 살고 싶은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더불어 많은 공부를 통해 직접 집을 구상하고 설계하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일부의 건축주들은 건축사의 영역을 침범하여 본인의 생각과 스케치 등 여러 가지 조사 자료들을 가져와 건축사들이 드로잉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고민과 열정으로 집을 설계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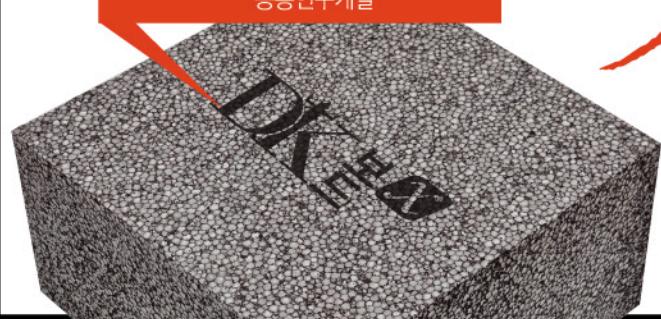
언제부턴가 TV에 나오는 다양한 집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또한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바꾸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등 인식의 전환에 방송이라는 매체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유튜브와 인터넷에 넘쳐나는 집과 관련된 자료들 또한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요구하는 수준들을 높게 만들고 있다. 본인에게 필요한 집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맞는 공간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게 되면서 스스로 건축을 공부하여 소위 말하는 수준 있는 건축주가 되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렇듯 집의 안과 밖에 대한 많은 고민들로 자신의 로망을 담은 집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이거나 삶의 방식에 대전환을 과감히 선택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그저 꿈꾸게 되는, 나중에라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모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기울인 관심과 노력들의 결실들이 새롭고 다양한 주거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발전하고 변화되는 시기에 작은 바램은 개인에게 필요한 안식처로서 세심하게 만들어 가는 그 집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개인의 집과 집이 모여 이루어진 마을과 이것들의 집합체인 도시 또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발전해가면 좋을지를 우리 다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여럿이 함께 모여 살아가야 할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만한 도시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EPS 준불연 단열재

DK |주|디케이보드 X HDC 현대EP
공동연구개발



DK



준불연 EPS 단열재

DK 본 X

DK보드 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HDC현대EP 울산PS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준불연 단열재 DK보드 검색

DK |주|대 광 판 벨 고객센터 1855-2240

사랑에서 _ 여든아홉 번 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 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이다. 즉, 개인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소개된 인간에 대한 소개다.

그래서일까? 타인이 보는 시선과 세상이 정하는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늘 주변을 의식하며 산다. 삶에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 사회 속 존재로, 우리(we) 속 나(me)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더 편할 때가 많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오직 '나'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

여섯 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18세 때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강철로 된 코르셋을 입고 침대에 누워 허공에 캔버스를 걸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다는 알프레드 디 수자(Alfred D. Suja). 여러 시련과 싸우며 40대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의 시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열정과 적당히 대충대충 살지 말라는 충고를 주고 있다.

춤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시인은 호소한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고. 엉망진창, 상처투성이가 나더라도 다시 사랑하라고 한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소리를 내라고 한다. 생존만을 위한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도 하라고 한다. 내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한다.

혹시 내일 올지 모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주 되돌아봐야겠다. 좋은 삶이 곧 시작될 거라고 하면서 오늘은 우선 눈앞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내일, 다음에 즐기고, 사랑하고, 놀고, 활동하며 살려고 하다가 혹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지금, 여기,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인생이고,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겠다.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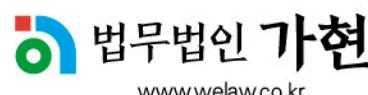
건축사 Q&A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최소 면적을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함. [시행 2022.5.1.]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4.27. 일부개정]

용도	기준	변경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300㎡	50㎡
이용원·미용원	500㎡	50㎡
목욕장	500㎡	300㎡
의원·치과의원	500㎡	100㎡
휴게음식점·제과점	300㎡	5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참조



www.welaw.co.kr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최정희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상속·이혼·후견)전문변호사
- 광주 인성고 졸업, 전남대 법대 및 대학원
-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민사법학회 감사
- 광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광주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전남개발공사, 광주안과병원 자문변호사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반석기초이엔씨(주)

www.bs-base.co.kr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EcoSM 지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マイ크로파일 · 팽이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건축문화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주현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임태형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희, 임용훈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이충미 건축사 진짜노리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건축문화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사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영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252-2번지 / 대지면적 : 2,764㎡ / 건축면적 : 230.24㎡ / 연면적 : 319.47㎡ / 건폐율 : 8.33%
용적률 : 11.56%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인조석, 스타코플렉스, 점토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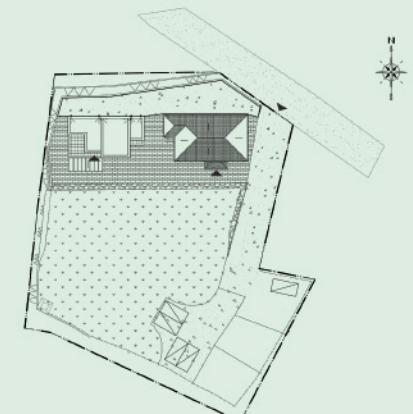
마동주택

한만호 건축사 / 한성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59, 2층 201호
tel. 061-761-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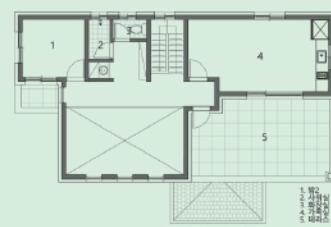
“가야산 자락의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넓은 대지로 주변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는다. 조경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집을 별동으로 각자의 성향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아버지집의 2층은 가족실과 넓은 발코니 공간을, 아들집은 아이를 위한 놀이방과 취미실로 계획하였다.”



배치도



1동 1층 평면도



1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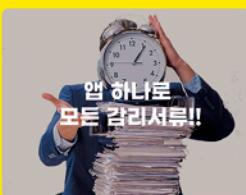


2동 1층 평면도



2동 2층 평면도

아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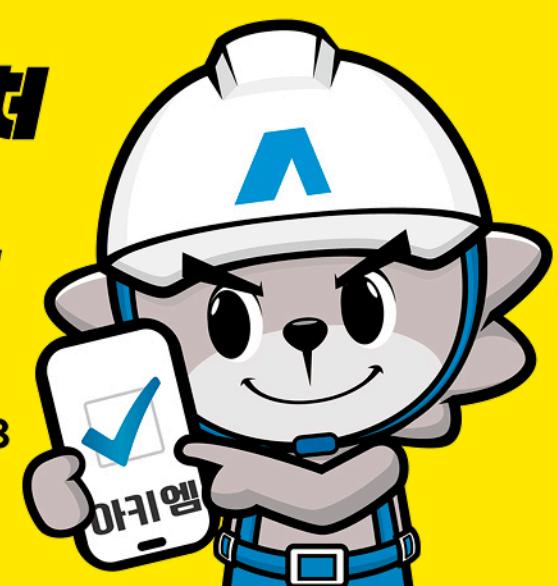
K비대면바우처 새해대박! 최대 280만원지원

문의 02 3462 1336

이기상 건축사직통 010-8276-6158

더 알아보기 www.arkim.kr

놓치면 후회!!



전남건축사회, '2022년도 상반기 실무교육' 5월 10일부터 신청 접수 6월 3일 무안과 6월 10일 순천에서... 각 전문교육 4시간 인정교육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오는 6월 3일 전남 무안군과 10일 전남 순천시에서 '2022년도 상반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은 전문교육 4시간 인정교육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장현진 강사의 '건설공사현장 공사감리자 현장관리지침' 과목과 전라남도교육청 김민수 강사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사전기획업무' 과목으로 진행된다.

6월 3일에는 무안군에 위치한 전남여성가족재단과 6월 10일에는 순천폴리텍 대학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에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다.

일자	시간	과목명	강사	장소
6.3 (금)	13:00 ~ 14:30	건설공사현장 공사감리자 현장관리지침 (해체공사감리 포함)	장현진 (국토안전관리원)	전남여성가족재단 204호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061-260-7300
	15:00 ~ 16:30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사전기획업무	김민수 (전라남도교육청)	
6.10 (금)	13:00 ~ 14:30	건설공사현장 공사감리자 현장관리지침 (해체공사감리 포함)	장현진 (국토안전관리원)	순천폴리텍대학 본관 1층 대강당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41 061-721-0300
	15:00 ~ 16:30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사전기획업무	김민수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건축자산 '갑자옥 모자점' 활용한 모자아트갤러리 9월 개관 예정 갑자옥 모자점 등 2개 건물 전시, 판매, 체험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



목포시가 원도심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자산인 갑자옥 모자점(甲子屋帽子店)을 활용해 모자 관련 전시·판매 및 체험 문화공간인 '목포모자아트갤러리'를 오는 9월 개관 할 예정이다.

갑자옥 모자점은 지난 1897년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성장한 목포에서 상업시설들이 밀집돼 가장 번화했던 본정통 한가운데에서 1927년 개업한 유일한 조선인 가게로 최근까지 100여 년을 이어와 목포 원도심을 상징하는 노포(老鋪)로서 의미가 있는 건축자산이다.

갑자옥 모자점은 일제강점기 당시 2층 목조 건물이었으나 1965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현재의 3층 콘크리트 건물로 재건축되면서 트레이드 마크인 '甲' 전각이 새겨졌다.

시는 갑자옥 모자점의 역사·문화·경제적 상징성을 고려해 지난 2020년부터 1년여간 전시·패션·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갑자옥 모자점과 인접한 (구)야마하선외기 등 2개 건축물을 활용해 '모자'를 전시콘텐츠의 기반으로 하는 '목포모자아트갤러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목포모자아트갤러리 1관인 갑자옥 모자점은 주제관으로 모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스토리텔링, 미디어아트, AR·라이브스케치 등 전시·체험공간으로 탈바꿈되고, 2관인 (구)야마하선외기는 모자 각인, 모자 제작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개방형 수장고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2개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사 등 리모델링을 지난 3월 완료했고, 5월 중 전시콘텐츠 제작 및 전시물 설치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오는 9월 개관할 계획이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7월 개관 예정

현존 유일 근대 금융계 건물 상징 살려 대중음악과 인연 전시

목포시가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을 활용한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을 오는 7월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5~6월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에 콘텐츠 설치를 마무리하고, 7월 문을 열어 본격적으로 하계 관광객을 맞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을 매입해 원형 회복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 검토와 회의, 현장 조사를 수십회 걸친 끝에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콘텐츠 구성안을 마련했다.

구성안은 건축 원형을 살리는 열린 공간 구성을 중점 을 뒀다. 이를 위해 1층은 전시물 나열을 지양하고, 목포 현존 유일한 근대 금융계 건물로서의 특성, 호남 인사들이 설립한 순수 민족 자본 은행이라는 상징성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백과 개방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출한다.

또 지금껏 목포에 없었던 최신 미디어아트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군더더기를 뻬 공간에서는 기획 전시, 소규모 행사, 회의 등의 진행이 가능하다.

2층 테마는 대중음악으로서 목포와 한국 대중음악의 각별한 인연을 선보인다. 목포는 관련된 대중가요가 110곡 이상으로 '목포의 눈물'로 잘 알려진 이난영, 최초 걸그룹인 김시스터즈 등 K-Trot 발전의 초석을 놓은 별들을 배출한 도시다.

시는 이 같은 자산을 소재 삼아 대중음악이 생겨나고 유행했던 스토리와 콘텐츠들을 관람·체험할 수 있으며, 매년 명예 대중음악가를 선정해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관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앵커시설이 될 안내 플랫폼과 휴게 공간,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가 운영돼 시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지원한다.

순천시, 도로폭 20m 이상 대로변 건축물에 일조권 적용 '규제 완화' 추진 도시 미관 개선 및 토지 이용 확대, 건축경기 활성화 기대



순천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상업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3층 정도)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도시지역 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의 이용 확대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건축신고팀(Tel. 061-749-5843)으로 문의 바란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최희정 건축사 / 지온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만호로29번길 4-2
- 박진영 건축사 / 에이앤드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성길 149-8, 2층

• 재입회

- 최제옹 건축사 / 포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흙산로 15

• 부고

- 송지희 건축사 / 품에 건축사사무소 / 회원상 - 04월 15일



다른생각 같은자리

빙인섭 건축사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전북 익산시 인복로 234, 2층

Tel. 063-837-0508

전북대학교 수출 한옥, 베트남 퀴논시 준공

지난 4월 26일 한옥정자 준공식 열려... K-HOUSE 문화 알리는 데 기여



전북대학교에서 제작한 전통한옥이 베트남에 수출되어 준공식을 거행했다. 지난 4월 26일 베트남 퀴논시에서 거행된 한옥정자 준공식에는 퀴논시의 응오 황시장을 비롯하여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테이프 커팅 등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응오 황시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결집된 한국전통건축을 베트남 퀴논시에 건축하여 영광”이라고 하였으며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우리나라의 전통건축 요소가 종합된 전통건축을 전북대학교 교수진, 학생, 졸업생, 인간문화재 등이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고 이를 베트남에 건립하여 기쁘다”라고 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베트남 퀴논시 관계자와 시민, 한국교민들

이 참석하였으며 주변 상가에서는 한국정자 준공을 기념하여 식당에서 10%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 정자가 건립된 지역은 퀴논시에서 국제무역도시로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의 중심부에서 앞으로 한국건축문화를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1차적으로 200m² 부지에 정자가 들어서고 단계적으로 한옥 홍보관,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정자는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 교수진, 교육생, 졸업생, 인간문화재 등이 참여하여 고창캠퍼스에서 설계하고 치목한 다음 작년 12월 선적하여 4개월 만에 준공한 것이다. 전북대학교 한옥센터는 그동안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적합하도록 훈증기술과 포장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추후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조기술도 같이 개발하였다.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 남해경 센터장(건축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연구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한옥 수출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한국의 K-HOUSE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대학교 한옥팀은 바로 이어서 미국 Georgia 주에 한옥을 건축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5월에 출국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루어 졌던 알제리의 한옥도 선적할 계획이다. 또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과도 계속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전라북도, 시설물 등 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추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건축물 및 교량 등 시설물 30개소에 대해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물 및 교량 등 시설물 30개소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4일 도청에서 2022년 상반기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교수·공사·민간업체 대표 등으로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9개 분야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에서 신청한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 30개소를 확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별로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배분했다.

시군에서 신청한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1979년 준공된 부안면 계화면사무소 등 건축물 15개소와 1977년 준공된 익산 동자교 등 시설물 15개소로 대부분 외벽 균열 및 포장면 균열 등이 발생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회의에서 선정된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해 5개월간(5~9월)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은 철근탐사기, 강도측정기 등 점검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정성을 평가한다. 종합결론을 통해 교체·보수·보강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주택가 주변 주차 공간 조성 지원

아파트 단지 내 1면당 50만 원, 단독주택은 150만~200만 원 지급

전주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지난 5월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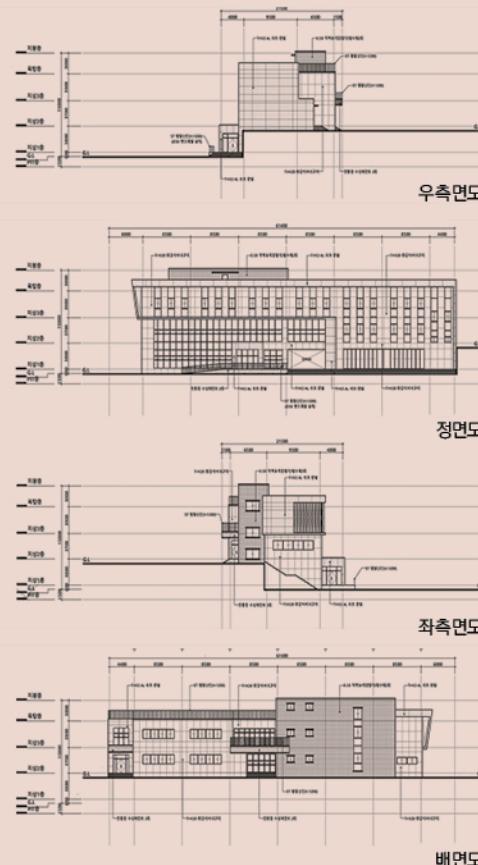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 주차장 조성 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간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로 방문하거나 전화(Tel. 063-281-50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075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도왔다.



작품 배경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해지는 오늘날의 가족과 친구들의 행태이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언어를 습득해야 하고 때로는 친구와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배워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생각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지 읽기에 나서본다.

계획 개념

기존 익산남중이 떠난 자리에 새롭게 조성되는 외국어센터는 각 학교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모여 한가지의 언어들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여 그들을 이해하는 장으로 때로는 그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는 장소를 제공코자 하였으며, 기존 학교의 소중한 장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에 같은 장소를 편집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의 소통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건축공간과 생각 공간이 한곳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구성코자 함이 목적이었다.

작가의 주장 등

기존 체육관과 방과후 학습공간이 공존하는 사잇 공간에 기존 기능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기능 발생에 따른 새로운 이벤트 공간의 형성과 기존 기능들을 상생 공간의 형성을 통해 사용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발휘될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전주시, 주거복지·통합돌봄·주거지재생 역량 강화

지난 4월 25일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공공건축가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진행



전주시가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각종 주거복지사업과 통합돌봄, 주거지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25일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주거복지네트워크 단체와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주시주거복지네트워크·공공건축가 제1차 연설회의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제2기 전주시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착수에 따른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향후 수립되는 제2기 전주시주거복지기본계획에 ‘주거문제 해소’, ‘주거복지 실현’,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등 각 주체별 통합연계에 대한 의견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어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성원과 공공건축가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와 통합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정책 방안 및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지역 기반의 주거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주거복지와 주거재생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지재생 방안을 강조했다.

전주시, 첫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 기대

그간 별도로 운영되어온 전주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면서 건축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지난 4월 6일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주택건설 통합심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빌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상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건축·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교통영향평가·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해 개최하는 제도로,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통합심의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 추진 시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각각 이루어지고, 각 심의마다 전문 분야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득한 심의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그간 별도로 운영해온 건축·

도시계획·교통·경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전주시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 신청을 받고 있다.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 협의 등이 줄어들어 당초 10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심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돼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익산시, 고도지구 내 한옥 신축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고도 이미지 찾기 한옥 건립 지원금 당초 1억 원에서 상향

익산시는 금마면과 왕궁면 일부 고도지구 내 한옥 건립 지원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고도지구 내에 한옥(담장 포함)을 신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상향 지원해 한옥 건립 활성화를 추진한다.

당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던 보조금 한도액을 5천만 원을 상향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조례안은 한옥·담장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상향과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의 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건비 및 자재비 대폭 상승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였다.

단, 금마 이주단지의 경우 시에서 대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였기에 보조금 지원 한도는 당초대로 1억 원을 지원한다.

고도지구 내 한옥 신축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둬야 하며,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한옥 준공 후 5년 동안 외관 유지와 매매, 담보, 임대 제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전북 회원동정

•변경(소재지)

- 정근양 건축사 / 아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51-25
- 박상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8
- 한규덕 건축사 / 한담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적천로 415-1

•결혼

- 정영철 건축사 / 미지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04월 30일(토)

•부고

- 박종윤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 배우자상 - 04월 15일(금)
- 장영우 건축사 / 삼경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4월 22일(금)
- 김희순 건축사 / (주)울그룹 건축사사무소 / 시모상 - 04월 24일(일)
- 정용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운건축 / 모친상 - 04월 30일(토)

GWANGJU REGION NEWS

광주에서 열린 제1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지난 4월 28일과 29일 광주보라매구장에서... 우승은 경남에나 팀이



제1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광주 광산구 보라매구장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이 개최된 28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전북건축사회 박진만 회장, 전남건축사회 한형민 회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 등 내외빈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회장 조휴환) 주관으로 개최되어 전국 17개 시·도 20여 개 팀 500여 명이 참가했다.

석정훈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정인채 회장의 환영사와 내외빈 축사, 감사패 전달식, 지원금 전달식, 우승기 반환, 선수대표 선서, 기념사진 촬영, 시축 등이 이어졌다.

정인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회참가로 광주를 방문하신 전국 건축사 회원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대회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조휴환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에서 장애인축구단에 꿈나무 육성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대회의 우승은 경남에나 팀이 전북 팀을 승부차기 끝에 누르고 차지했다.

광주건축사회, 2022년도 광주건축사회 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지난 5월 3일 전남 무안 CC에서... 우승은 박대일 건축사가



2022년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5월 3일 전남 무안 CC에서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회장 장동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정인채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념 촬영과 함께 시타로 시작됐다.

총 22개 팀이 경기에 나섰고 경기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 정인채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모임이 축소되어 개최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골프동호회는 방역 사항을 완벽히 준수하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회원들 간의 단합을 유지해 나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골프대회 시상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시상식으로 많은 회원 여러분들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에서 많은 회원이 상을 수여 받았으며, 최종 우승자는 박대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광야)가 차지했다.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지방선거 출마 회원 격려 방문

지난 5월 6일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강현구 전임회장 선거사무소에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지난 5월 6일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강현구 건축사(조형 건축사사무소(주))의 선거사무소에 격려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인채 회장을 비롯하여 광주건축사회 박재홍 부회장, 대한건축사

봄빛담(봄빛 담은 하얀집)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 4층
Tel. 062-945-5442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785-1 / 대지면적 : 528m² / 건축면적 : 105.05m² / 연면적 : 147.78m² / 건폐율 : 19.90%
용적률 : 27.99%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골구조-스틸하우스 / 주요마감 : 스타코, 고내식 합금 도금강판





협회 정명철 이사가 동행했다.

정인채 회장은 “건축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시민들에게 건축사의 위상을 알리고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현구 전임회장도 격려 방문에 감사함을 표하며, “건축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며 뜻깊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202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접수 진행

전 회원 대상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 9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건축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일정 및 참가 접수 안내를 공고했다.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회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건축사회는 대회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참가한다고 밝혔으며, 회원들에게 오는 5월 29일까지 건축물 투어프로그램 코스와 실무교육 프로그램 코스 중 참여할 프로그램을 선택 후 제출하도록 했다.

참가 일정 및 참가비,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29257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제2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오는 5월 23일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진행... 총 30여 명 위원 위촉



광주광역시는 2년 임기의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오는 5월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모집자격은 광주·전남지역 거주자(근무지 포함)로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이나 관련 분야의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박사는 2년, 석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신청 방법은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요약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이메일(thereee@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필요 서식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대명리조트 2022년 여름성수기 추첨 접수 공지

오는 5월 25일까지 접수... 여름성수기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는 오는 5월 25일까지 대명리조트 2022년 여름성수기 추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성수기 기간은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이다. 사용을 희망하는 연금관리회 회원은 공지된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팩스(062-528-0026) 또는 이메일(gjkira@empas.com)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오는 5월 31일에 개별문자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 및 첨부 서식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29259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정 열 건축사 / 제이포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124번길 18, 3층
- 이미란 건축사 / 더엠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로 124, 524호

• 변경(사무소명&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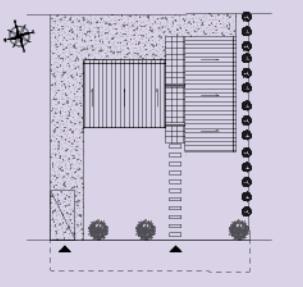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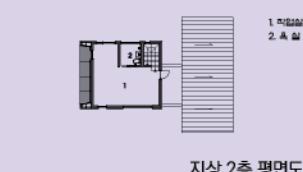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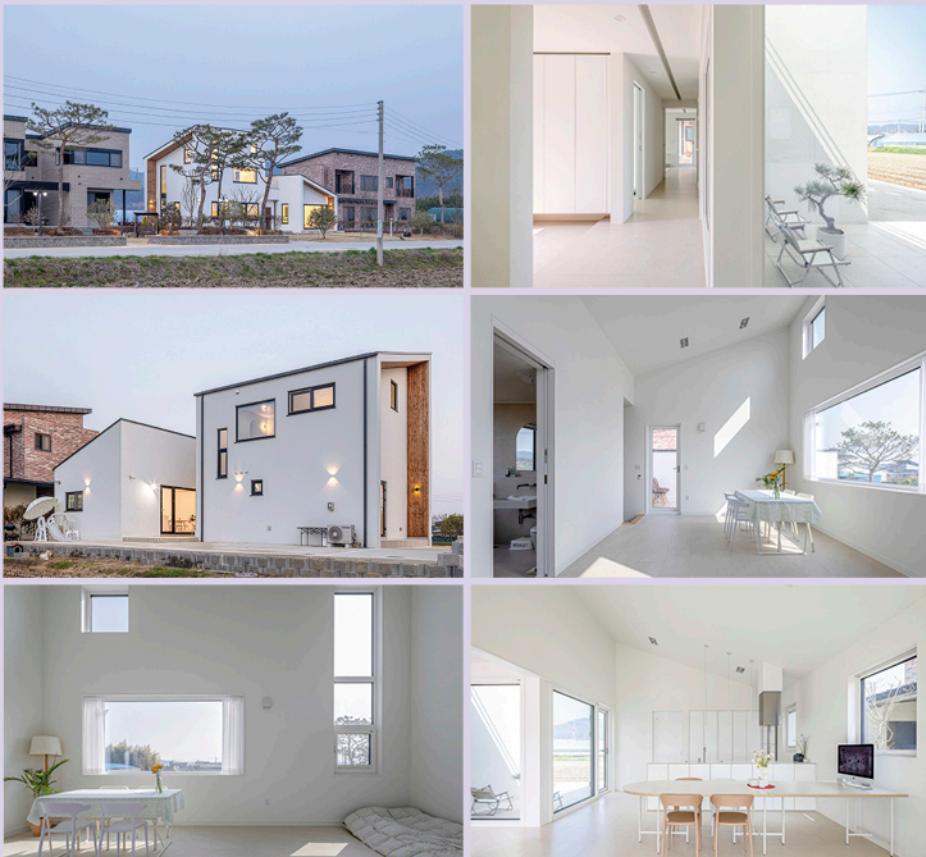
- 김화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광주 서구 운천로103번길 4, 2-3층

• 변경(소재지)

- 김철홍 건축사 / 일석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3동 208호
- 이현조 건축사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57, 4층
- 김종환 건축사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신아 / 광주 서구 운천로 174, 3층

• 부고

- 이경행 건축사 / 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 / 부천상 - 04월 22일(금)
- 이윤행 건축사 / 티에스 건축사사무소(주) / 부천상 - 04월 22일(금)
- 박창수 건축사 / 연우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5월 03일(화)



본 건축물의 대지는 과거 논이었던 공간을 개발하여 도로와 4개의 필지로 만들었고 그중 중간에 위치한 한 필지였다. 전면에 위치한 도로를 제외하고 사이트의 전면과 후면으로 농지가 펼쳐져 있는 평야와 같은 위치에 대지는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사방이 트여있는 이곳에 어떤 건축물을 앉혀야 좋을까라는 고민으로 계획은 시작되었다. 농지를 면한 대지는 4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다.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을 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여름에는 초록빛으로 물든 바람에 나부끼는 넓은 초록 바다가 펼쳐지고,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겨울이 되면 수확이 끝난 공허한 평야가 펼쳐지고 가끔 새하얀 세상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는 복잡한 형태의 건물보다는 단순하지만 개성이 있는 집을 그려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단순하지만 가로로 놓인 사각형매스와 세로로 놓인 사각형매스 2개를 결합한 형태로 건축물의 형태는 결정이 되었고 대지의 뒤쪽으로 넓은 농지와 멋진 산이 보이는 곳이어서 뒷마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다.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건축설계 공모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두 및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보호·관리 공간 부족 심화로 인하여
유기동물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한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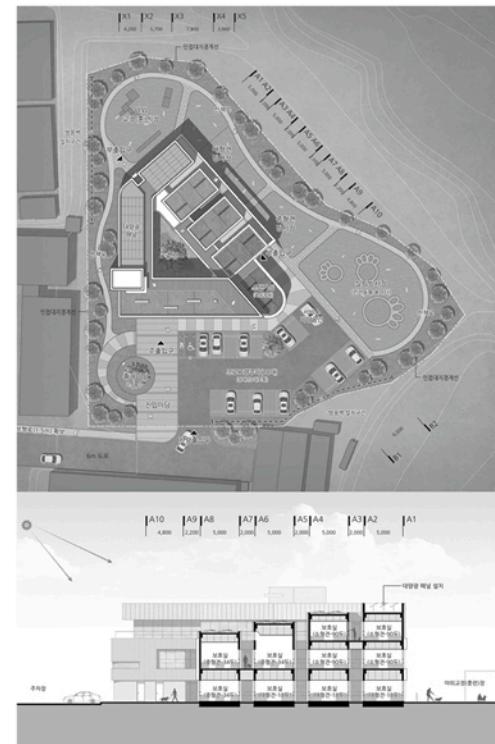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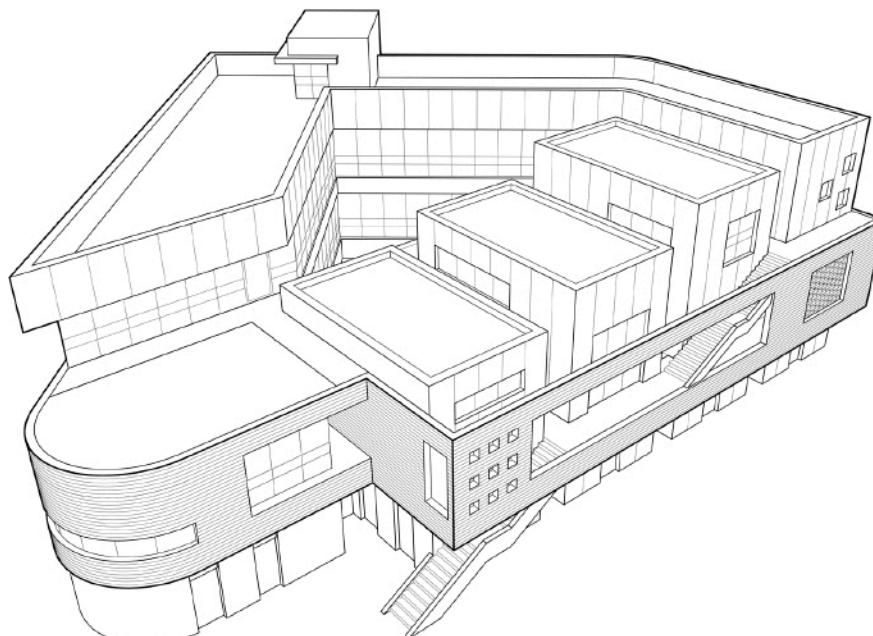
심사위원 : 유우상(전남대), 이재홍(순천대), 김용춘(조선대), 조기호(숨 건축), 박종호(유민 건축)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엘
2등작 : 건축사사무소 파인애플
3등작 :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4등작 : 건축사사무소 기란
+ SDG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379-2번지
- 대지면적 : 3,307m²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 건축면적 : 624.81m²
- 연면적 : 1,543.58m²
- 용도 : 광역동물보호센터(공공업무시설)
-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 공사비 : 3,571,7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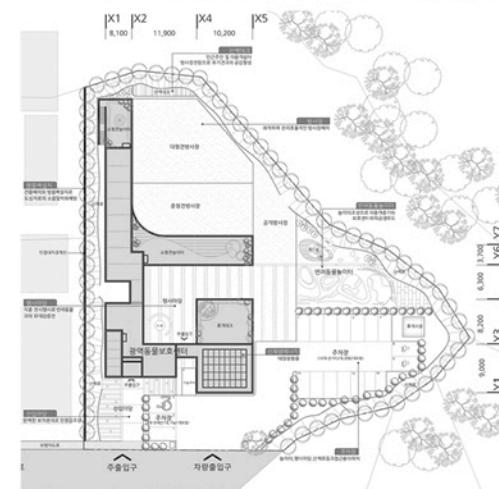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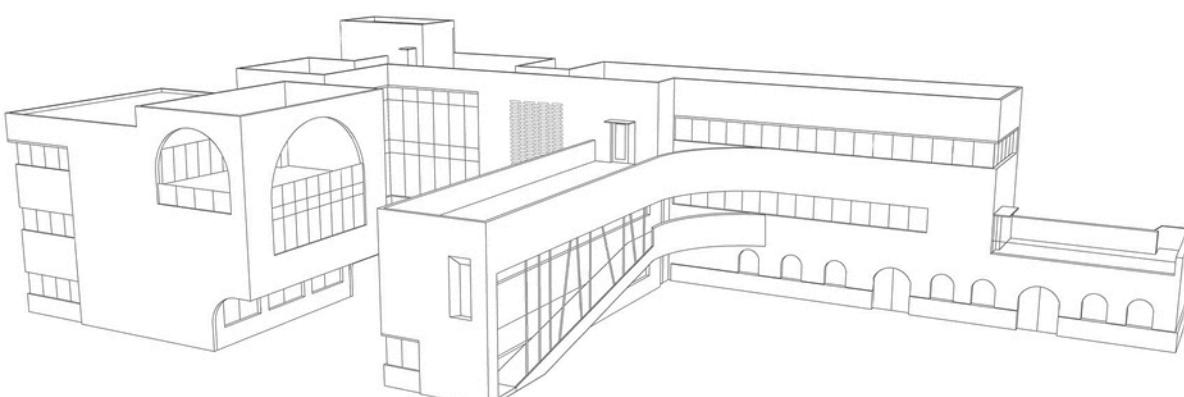
당선작

임용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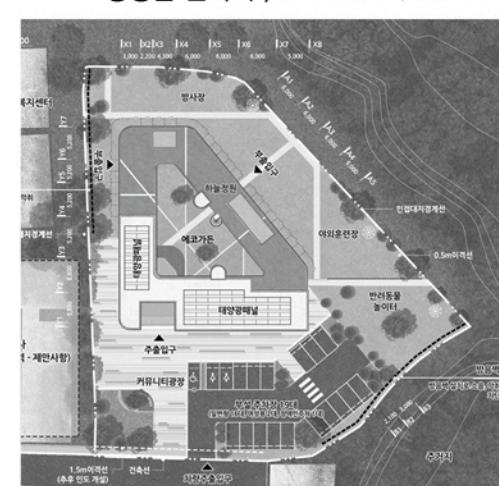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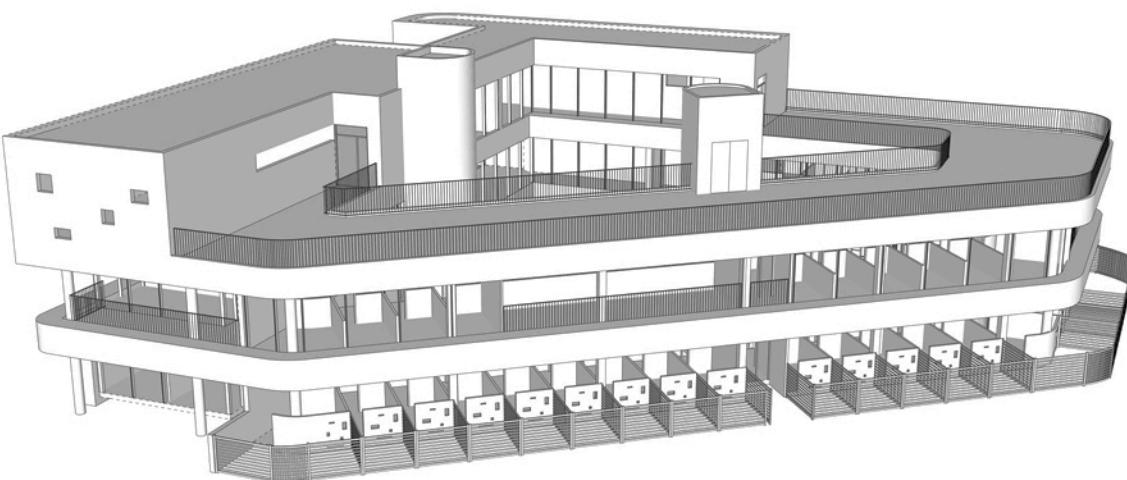
2등작

조찬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파인애플



3등작

정영법 건축사 /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책 소개 _ 진다엘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한 편의 시 _ 濟堂 주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양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

맹상 후지이 유미, 우쓰노미야 기요히토 공저 /
옮긴이 8명 / 미세움 / 2021. 08. 15.

이 책은 맹상 후지이 유미와 우쓰노미야 기요히토가 현지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실상을 정리하여 현재 일본의 지방 도시가 갖고 있는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도시 쇠퇴 현상에 대해 도시재생을 위해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의 구성은 1장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현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2장에서 노면전차 도입에 의한 교통도시 정비의 전체상에 대해 논한다. 3장부터 6장까지는 프랑스의 교통 정책, 상업 정책, 토지 이용, 합의 형성의 구조 등 각 논의를 자세히 검토하고, 7장에서는 프랑스의 실태를 바탕으로 일본이 채택해야 할 전략, 전술을 정리한다. 저자는 “프랑스와 일본은 그 역사나 제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일본의 지방 도시재생을 위한 어떤 힌트를 독자와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일본과 프랑스, 지방 도시의 현재’이다. 먼저 일본의 중심 시가지의 쇠퇴에서 ‘닫힌 상점가’를 중심으로 쇠퇴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지방 도시들의 중심 시가지가 활기찬 이유를 분석하고, ‘걷기 즐거운 마을 만들기’를 통해 사람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활기찬 지방 도시 시가지가 되기까지’이다. 프랑스의 저렴한 요금 설정과 철저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조치를 통해 도로가 많은 시가지의 자동차 의존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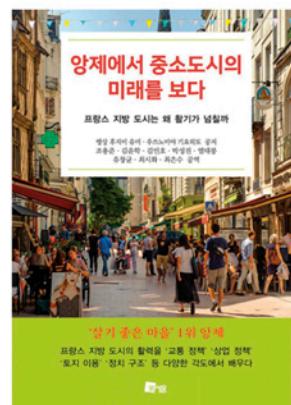
세 번째 주제는 ‘도보 생활이 가능한 마을을 실현하는 교통정책’이다. 교통수단의 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까지 최대한 배려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네 번째 주제는 ‘중심 시가지 상업이 교외 대형 상점과 공존하는 구조’이다. 이는 대형 상점 출점 규제에서 완화로의 흐름과 사람들의 소비 행동을 통해 프랑스의 상업 실태, 그리고 상점의 현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마켓과 거리의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콤팩트 시티를 뒷받침하는 도시 정책’이다. 교외로의 이동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 소비 활동이 왕성한 현역 인구를 도심에 머물게 하도록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주택 정책과 도심의 학교 및 공원 등을 정비하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는 정치’이다. 지자체들의 주도권을 목적으로, 정책의 철저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쇠퇴하는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건축학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라는 예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쇠퇴도시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영혼없는 건물



우리 육신은
움직이는 건축물

부드러운 피부로
내부의 복잡한 기관을
얇은 표피로 감추고 있을 뿐
우리 몸도 건축물과 같다

건물도 단단한 재료로
복잡한 내장을 감추고 있듯
우리 육신은 살아있는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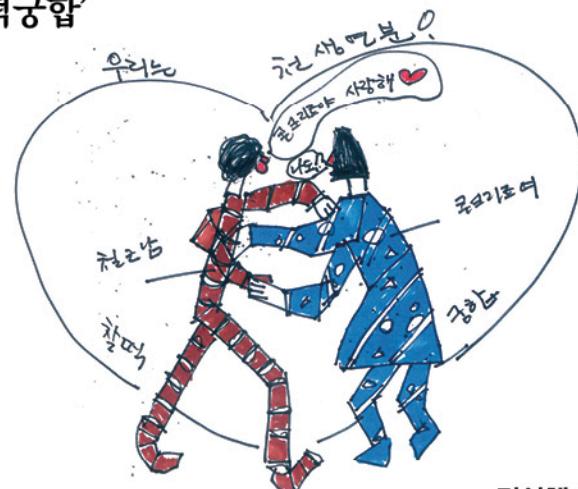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자와 같은 것
철학이 없는 건축물은
흔이 없는 건물뿐이다

고층건물도 좌우로 훌둘려야
지진에 견딜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훌둘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어떤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있으랴 반문한다

건축사 만평

‘찰떡궁합’



김선채 건축사 作
뉴텍 건축사사무소(광주)/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문의전화 1666-5123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우수한 물성과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진
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방수!!

조달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 우수한 내구연한 및 접착강도
- 철재지붕, 옥외 주차장, 수직벽체 등 다양한 곳에 적용 가능한 뛰어난 시공성

조달제품 문의 : 윤현창 010-3618-6053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용도/규격	t2mm 옥상/주차장	t3mm 옥상/주차장	t2mm 철재지붕
제품단가 (VAT포함)	45,000	56,000	47,000
바탕정리비 포함/현장설치도			



환경표지, 창업기업, KS인증